

# 중국과 대만의 화교화인 교육 비교

고 영 희 (전북대학교)  
(dulli511@hanmail.net)



## 국문요약

2010년대 이후 중국은 교무공공외교(僑務公共外交)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여 6천만 명 이상의 화교화인(華僑華人)을 통한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화교화인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원 교무판공실에 외교인력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외교부와 교무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화교화인정책은 중국 국가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그 위상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 초점을 두던 기존의 화교화인정책은 문화·인문교류와 공공외교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화교화인학교는 전세계적으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학습하고 교민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중국문화를 현지 사회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화교화인들은 중국어·중국문화에 대한 학습과 체험을 통해 중국 문화정체성이 강화된다. 동시에 이는 중국의 교무공공외교에 큰 자원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화교화인교육의 중요 개념을 중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외 화교화인학교의 실제 운영 및 중요 정책을 비교·검토하였다.

주제어 : 교무공공외교, 화교화인, 화문교육, 화교교육, 화어문교육

## I. 머리말

중국은 2000년대 이후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 영향력 제고를 위해 공공외교에 주력했다. 그 중심에는 세계 126개국에 설립된 475개 공자학원과 851개 공자학당이 있다.<sup>1)</sup> 2010년대 이후 중국은 교무공공외교(僑務公共外交)란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여 6천만 명<sup>2)</sup> 이상의 화교화인(華僑華人)을 통한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교무공공외교는 2011년 6월 전국교무회의(全國僑務會議)에서 처음 제기되었다.<sup>3)</sup> 당시 국무원 교무판공실(國務院 僑務辦公室, 이하 국교판) 주임 리하이펑(李海峰)은 “2011-2015 (12.5시기)기간은 ‘교민을 교량으로 -중국과 세계를 소통함(以僑爲橋—溝通中國與世界)’을 중심으로 교무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이빙귀(戴秉國)는 교무공공외교를 “해외 교포들이 현지 정부와 주류사회에 중국의 기본 상황과 발전의 길, 국내외 정책을 소개하여 중국의 발전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들이 중국과 거주국 간 각 영역의 협력·교류의 우호사절이 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sup>4)</sup>

2011년 9월, 국무원은 『국가 화교화인 업무 발전 요강(國家僑務工作發展綱要, 2011-2015)』을 발표하고 2012년부터는 외교인력을 국교판에 투입했다. 예컨대 현재 국교판 주임 치우위안핑(裘援平)은 중공중앙 외사영도소조 판공실(中共中央外事領導小組辦公室)의 부주임이었으며, 부주임 허아페이(何亞非)는 외교부 부부장을 역임했다. 이처럼 외교부서와 교무부서의 협력은 화교화인정책이 국가전략의 중요한 일환으로 시행될 것이며, 그 위상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임을 보여준다.<sup>5)</sup>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 초점을 두었던

- 
- 1) 2014년 12월 기준 자료. 중국 국가한판(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 홈페이지 참조. [http://www.hanban.edu.cn/confuciousinstitutes/node\\_10961.htm](http://www.hanban.edu.cn/confuciousinstitutes/node_10961.htm) (검색일: 2015년 6월 30일)
  - 2) 中國與全球化智庫. “中國國際移民報告(2015).” 〈FT中文網〉(2015.4.17.), <http://www.ftchinese.com/story/001061602?full=y> (검색일: 2015년 7월1일) 이 기사에 따르면, 6000만 명 이상의 화교화인이 198개 국가에 분포되어 있다. 현 국교판 주임 치우위안핑(裘援平) 역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수치를 밝힌 바 있다. “裘援平：現在海外華人華僑有6000多萬 分佈在世界198個國家和地區.” 〈新華網〉(2014.3.5.)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3/05/c\\_126225434.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3/05/c_126225434.htm) (검색일: 2015년 6월 2일) 한편, 대만 교무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화교화인 수는 4,250만 명이다. [http://www.ocac.gov.tw/OCAC/File/Attach/10/File\\_19679.pdf](http://www.ocac.gov.tw/OCAC/File/Attach/10/File_19679.pdf) (검색일: 2015년 6월 30일).
  - 3) 17차 6중전회(2011년 10월)에서는 “중화문화가 세계로 나가는 것을 추동해야 한다”, “해외 화교화인이 적극적으로 중국-외국 간의 인문교류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中國共產黨第十七屆中央委員會第六次全體會議文件匯編』, 2011. 人民出版社, 43쪽. 金正昆, 臧紅岩. 2012. “當代中國僑務公共外交探析.” 『廣西社會科學』 2012年第5期, 1-2쪽 재인용.
  - 4) “全國僑務工作會議首提僑務公共外交.” 〈中國新聞網〉(2011.10.21.), <http://www.chinanews.com/zgqj/2011/10-21/3406592.shtml> (검색일: 2015년 6월 2일).
  - 5) 이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 위치한 화교대학

기존의 화교화인정책은 문화·인문교류와 공공외교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sup>6)</sup>

중국정부는 화교화인에 관한 업무를 교무(僑務)로 칭한다. 교무정책은 내용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법률 등 5가지로 구분된다(劉國福 2013, 74). 이 가운데 화교들이 거주국에서 문화·인문교류와 공공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영역에 해당한다. 전세계의 화교화인 학교는 그들이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학습하고 교민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중국문화를 현지 사회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특히 화교화인들은 중국어·중국문화에 대한 학습과 체험을 통해 중국 문화정체성이 강화되는데, 이는 중국의 교무공공외교에 큰 자원이 된다.

화교화인학교는 그동안 중국정부와 현지 교육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공자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었다. 화교화인들이 자체 운영하는 학교는 ‘모국어로서의 화문교육(華文教育)’을 실시하는 반면, 공자학원은 ‘외국어로서 대외한어교육(對外漢語教育)’을 실시하여 중국정부 내 지원기관과 정책이 달랐다.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의 교무공공외교 추진에 힘입어 화교화인교육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에서 화교화인 교육연구는 주로 한국화교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sup>7)</sup> 이에 본 논문은 화교화인교육의 중요 개념을 통해 중국과 대만의 논의와 특징을 검토하고, 해외 화교화인학교의 운영현황과 관련 기관 및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이로써 향후 중국의 교무정책과 교무공공외교를 이해하는 데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화교화인 교육의 개념

### 1. 중국: 화교교육, 화문교육, 대외한어교육

중국에서 화교는 1984년 국무원이 반포한 〈화교, 귀국동포, 화교학생, 귀국동포학생, 교권(僑眷), 외국국적 중국인 신분에 대한 해석〉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공민”을

---

화교화인연구원에 2013년 5월 교무공공외교연구소(僑務公共外交研究所)를 설립하도록 지시했다.

6) “何亞非：推進公共外交和人文交流是僑務工作新使命。”〈中國新聞網〉(2013.6.21.).

<http://www.chinanews.com/gn/2013/06-21/4957548.shtml>;

“裘援平：2014年國僑辦將深化僑務公共外交。”〈中國新聞網〉(2014.1.9.).

<http://www.chinanews.com/zgqj/2014/01-09/5719387.shtml> (검색일: 2015년 6월 2일)

7) 한국에서 해외 화교화인 교육에 대한 연구는 田亨權·崔榮. 2007. “中國大陸與台灣華僑政策比較分析-以民族教育與經濟合作政策爲側重點.” 『중국연구』 40; 손준식. 2014. “냉전시기(1950~1971) 중화민국 僑務정책의 성격과 한계 : 동남아 화교교육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3; 김관준. 2015. “중국의 화교화인 역사·교육·문화 네트워크 연구.” 『재외한인연구』 35 등이 있다.

지칭한다(위애 1996, 16). 또한 화교교육은 주로 청말(清末)부터 1950년대까지 화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말하며,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문교육의 전단계를 가리킨다.(林偉然 1986, 53-54) 1950년대 이후 중국정부의 동남아 화교 이중국적 금지정책과 동남아 국가의 화교교육 제재로 인해 화교교육이 '화문교육'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郭熙 2015, 3). 오늘날 중국에서 화교학교(華僑學校, 약칭 僑校)는 화교화인들이 중국 귀국 후 진학할 수 있는 화교대학과 지난(暨南)대학 등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화문학교(華文學校, 약칭 華校)는 해외 소재 화교화인학교를 가리킨다.

화교교육과 화문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취지와 운영방식이다. 화교교육은 국내 교육의 해외 연장으로서 중국인의 정체성을 지향하며, 화교학교는 화교사회가 독자적으로 설립·운영한다. 또한 중국의 학제·교과과정·교재를 사용하고, 중국어로 중국의 언어·문화·수학·역사·지리 등 전반적인 과목을 가르친다. 반면, 화문교육은 거주국의 교육체계에 편입되어 거주국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거주국의 학제·교과과정·교재를 사용하며, 교사 역시 현지에서 채용한다. 중국어를 교수언어로 삼는 과목은 중국의 언어·문화로 제한된다(黃英湖·林蒲田 1991, 23-24). 이처럼 화문교육은 해외에서 화교화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대 중국어와 중국 문화 교육인 셈이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국력신장과 중국어 위상 제고로 인해 화문교육의 의미도 다음과 같이 다양해지고 있다. 첫째는 중국의 민족교육·문화교육의 주요방식으로서 화문교육이다. 화문학교의 설립 취지는 본래 화교화인들의 민족언어·문화 계승에 있었다. 예컨대 오늘날 화문학교들도 언어교육의 형식으로 존재하지만, 화어(華語)학교(Chinese Language School)가 아닌 화문학교(Chinese School)라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는 대외한어교육의 일부분으로서 화문교육이다. 현재 대부분 중국계 청소년들의 제1언어가 영어 또는 현지어이다. 이로 인해 화문교육은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외국인을 교육대상으로 삼는 대외한어교육의 모형을 따르고 있다. 셋째, 화교화인연구의 대상으로서 화문교육이다. 오늘날 화교화인연구는 점차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고 있다. 화문교육을 국제관계와 현지 사회문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넷째, 중국 교무업무의 일부분으로서 화문교육이다. 중국정부가 국교관 및 관련 기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화문학교 교재 편찬, 교사 연수 등 사업이다. 다섯째, 독자적인 학과 개설 논의 속의 화문교육이다(李嘉郁 2004).

이처럼 화문교육에 함축된 다양한 의미들은 그동안 화문교육이 수행했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앞에서 언급한 화문교육과 대외한어교육과의 관계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어 교육 수요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자학원으로 인해 높아진 중국어의 위상은 화교화인사회에서의 중국어 학습 수요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sup>8)</sup> 화문교육은 대외한어교육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화문교육과 대외한어교육 특징 비교

구분	화문교육	대외한어교육
역사적 기원	청조 말 <sup>9)</sup>	1970년대
영어 명칭	Overseas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Teaching of Chinese as a Foreign(Second) Language
교육 대상	화교 청소년 위주. 중국의 문화적 배경과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음. 대부분 유·초등 단계에서 학습 시작.	화교화인이 아닌 외국인 위주. 중국어 실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 성인 위주이지만 초등학생도 포함.
교육 목적	화교화인업무의 연장. 화교화인의 단결과 동향인 간의 유대감 강화. 화교사회의 차세대 양성.	언어·문화교류 촉진, 국제 우호협력 강화, 외국정부(관방)와의 관계 심화.
언어학 특징	제1언어와 제2언어 사이. 모국어 교육의 성격. 고향 방언이 특징이며, 번째자를 학습하기도 함.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 교육. 보통화와 간체자 학습.
교육 형식	화교사회의 독립적 운영. 일부는 100년 전통 보유. 전일제 수업. 신이민자가 설립한 신흥학교는 주말(과외 시간)반이 대부분.	대부분 외국 주요대학에 위탁하여 제2언어로서 교육.
교육 특징	향토문화 중시, 고향 색채 농후.	다문화와 국제 현지문화 융합 강조.
교과과정	화교사회와 화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문화계승의 기능이 명확함. 교재의 체계성 빈약.	언어학습 위주. 사회적 기능이 약하지만 교재의 규범성이 강함.
자금원	화교사회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화교사회의 모금·학비로 운영. 대부분 자금·운영 조건이 열악함.	국가한판 <sup>10)</sup> 의 지원과 현지 기관의 협력. 공자학원(학당)은 운영경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조건이 양호함.
안정적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 화교학교: “화교사회가 있는 곳에는 화교학교가 있다”. 운영이 비교적 안정적인.</li> <li>신흥 화교학교: 신이민자의 강한 적극성 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대.</li> </ul>	중국 정부 또는 외부 자금으로 운영. 외부 의존성이 강함.

8) 賈益民은 대만에서 개최된 〈海外華文教育論壇〉에서 “미국의 중국어 학습 열풍은 매우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 학습자 70% 이상이 화교화인 학생이었다. 외국인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고 말했다(夏誠華 2011, 14).

구분	화문교육	대외한어교육
교사 학력	학력·전공을 강조하기 어려움. 학력·학술적 수준은 보통 높지 않음.	학력·자격요건·학술적 수준이 비교적 높음.
외부 영향	거주국의 민족정책, 대(對)중국정책 등 대외정세의 영향을 받기 쉬움.	거주국의 민족정책, 대(對)중국정책과 기본적으로 무관한 순수 학문·교육으로서 대외정세의 영향이 크지 않음.

※자료출처: 丘進 2010, 91.

치우진(丘進)의 구분을 보면, 화문교육과 대외한어교육의 차이는 명확하다. 화문학교는 화교화인사회에서 자체 운영하여 자금, 교사, 교재 등 여건이 열악하지만 공자학원(학당)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상대적으로 조건이 양호하다.<sup>11)</sup> 또한 화문교육은 모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이지만, 대외한어교육은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이다. 그러나 화문교육과 대외한어교육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있다. 예컨대 일부 동남아 국가의 화문학교 중 외국학생의 비율이 이미 1/3 심지어 1/2까지 이르렀다.<sup>12)</sup> 이러한 환경에서 모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은 어렵기 마련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민자가 선진국의 주류사회에 편입하게 되면, 모국어에 대한 사용빈도가 감소하여 모국어를 점차 상실하게 된다(이재학 2006, 182-183). 미국에서 출생한 화인 91.2%가 영어만 사용하거나 영어를 매우 잘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丘進 2012, 60-62). 화인이 모국어보다 현지어를 더욱 잘 구사하여 중국어를 외국어로 배워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융이(吳勇毅)는 “화문교육에는 특수한 내용과 방법이 있다. 그러나 화예(華裔) 제3대 이후의 화문교육에는 대외한어교육과 중복되는 내용이 발생하게 마련이다.”<sup>13)</sup>라고 지적한다. 다원화되고 있는 화교화인사회에서 화문교육과 대외한어교육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

9) 1690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설립된 명성서원(明誠書院)은 해외 최초의 화교교육기구이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화교학교는 1898년 일본 요코하마에 설립된 중서학교(中西學校, 현재는 橫濱中華學院과 橫濱山中中華學校로 나뉨)이다.

10) 중국 국무원 교육부 산하 中國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의 약칭.

11) 〈孔子學院中方資金管理辦法(暫行, 2006)〉를 보면, 공자학원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공자학원의 건물 수리, 설비, 광고 등 지원 ②중국어 교육 실시 ③중국어 교사 훈련 및 중국어 교육 자원 제공 ④한어수평고시 및 한어교사자격 인증 업무 수행 ⑤중국 교육·문화·경제·사회 등 정보 제공 ⑥현대중국연구 추진 ⑦ 공자학원 개별 협의 중 규정된 항목. “中國政府出台孔子學院中方資金管理辦法(暫行)” 〈中國僑網〉(2006.11.22.) <http://www.chinaqw.com/hwjy/hjxw/200611/22/52473.shtml> (검색일: 2015년 7월 1일).

12) 趙陽. “第二屆世界華文教育主題講話-抓住機遇, 凝聚力量, 共謀發展(2011).” (嚴曉鵬 2014, 208)

13) “綜述: 海外華文教育與對外漢語教學期待資源整合.” 〈中國新聞網〉(2014.12.9.) <http://www.chinanews.com/hr/2014/12-09/6858970.shtml> (검색일: 2015년 7월 1일).

한편, 1970년대 이후에는 중국 신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거주국의 국적을 원치 않는 화교들도 생겨나고 있다. 귀시(郭熙)는 향후 화교화인사회에서 화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모국어 교육이 강화된 ‘화교학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015, 2-9). 그는 사회언어학에 입각하여 언어를 정체성 형성의 중요 요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화교교육은 공민에 대한 모국어 교육이며, 중국에 대한 정치적·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화문교육은 모국의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지만 거주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지향한다. 이 과정에서 민족적 정체성은 심지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郭熙 2015, 4). <표 2>를 보면, 화교교육과 국어교육은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 문화 정체성 보존에서 동일하다. 다만 국내와 해외라는 모국어 환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화문교육은 거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향하며, 민족 정체성도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화교교육·화문교육·국어(語文)교육의 차이**

구분	중국에 대한 국가 정체성	중화민족의 정체성	중화문화의 정체성	모국어 환경
화교교육	+	+	+	-(대부분)
화문교육	-	+-	+	-
국어교육	+	+	+	+

※자료출처: 郭熙 2015, 5.

1950년대 이후 세계정세 변화에 따라 해외에서 중국의 공민교육을 실시하는 ‘화교교육’은 모두 ‘화문교육’으로 대체되어 사라졌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발전과 중국 신이민자 증가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여 중국의 국가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화교교육’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2. 대만: 화교교육, 화어문교육, 화문교육

대만은 중국과 달리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sup>14)</sup>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대만정부는 화교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를 유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 화교는 중국인의 혈통을 지니며, 정치·문화적 측면에서 대만을 인정하는 화교화인을

14) 『僑務委員會委託研究報告“我國僑教政策未來發展趨勢之研究”』, 2010, 69쪽.

지칭한다.<sup>15)</sup> 대만 국가교육연구원의 『교육대사전(教育大辭書)』에 따르면, “광의의 화교교육은 해외에 거주한 중국인 또는 화인 후예들의 중화문화 도야를 위한 교민교육이다. 그 목적은 첫째, 화교의 민족정신을 배양하여 서로 돕는 마음과 조국에 대한 구심력을 발양하는 것. 둘째, 거주국 건설에 대한 화교의 실력을 증진시키고 거주국에서 화교의 사회적 지위를 제공하는 것. 셋째, 화교가 거주국의 경제를 번영시켜 거주국과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문화·교육을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 등이다. 협의의 화교교육은 국내와 국외 화교학생의 교육이다. 국내 화교교육은 화교자녀들이 조국으로 돌아와 진학하는 것이며, 국외 화교교육은 화교자녀들이 거주국에서 받는 각종 화문교육이다.”<sup>16)</sup> 광의의 화교교육은 화인 후예들을 포함한 ‘교민교육’이지만, 협의의 화교교육은 각종 ‘화문교육’이다. 대만에서는 화교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만의 ‘화교교육’은 중국의 ‘화교교육’과 ‘화문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에서 화어문교육은 중국의 대외한어교육과 자주 비교된다(潘朝陽 2010, 22). 화어문교육은 기존의 중문학과 혹은 국문학과가 전통 국학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크게 구별되며,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Teaching Chinese as a Second Language)을 가리키기도 한다<sup>17)</sup>(王毓雯 2012, 21). 중국의 화문교육과 대만의 화교교육은 관련 학과가 없지만, 중국의 대외한어교육과 대만의 화어문교육은 모두 독립적인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이 점은 대외한어교육과 화어문교육의 공통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 공립·사립 대학에 설립된 화어문교육 연구소, 응용화어문학과, 국제화어·문화학과 등은 세계 각국에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화어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화어문교육은 간혹 화교를 대상으로 하는 모국어 교육을 가리키기도 한다(江惜美 2009, 44). 이처럼 “대만의 대외한어교육이 해외 화문교육과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丘進 2010, 78). 현상은 양안(兩岸)의 학술교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의 세계화어문교육학회(世界華語文教育學會)는 2007년부터 중국의 지난대학, 북경 화문학원과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난대학, 화교대학 등과 〈양안 해외 화문교육 논단(兩岸海外華文教育論壇)〉을 개최하고 있다.<sup>18)</sup> 만약 대만의 화어문교육과 중국의 대외한어교육이 동일하다면, 세계화어문학회는 중국의 대외한어교육기관과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화어문학회는 중국의 지난대학, 북경 화문학원 등 국교판 산하의 화문교육기관과

15) 『監察院2010年度專案調查研究“我國海外僑教工作之研究與檢討”之專案調查研究』. 2010, 4쪽.

16) 張建成 楊洲松 主編. 2001. 『教育大辭書』. 國立編譯館. 〈雙語詞彙學術名詞暨辭書資訊網〉  
<http://terms.naer.edu.tw/detail/1311654/> (검색일: 2015년 6월 2일).

17) 教育部. 『邁向華語文教育產業輸出大國八年計畫(2013-2020)』. 3쪽.

18) 〈世界華語文學會〉, <http://www.wcla.org.tw/front/bin/ptlist.phtml?Category=101167#s> (검색일: 2015년 6월 2일).



교류하고 있다.

과거 화어문교육의 대상이 주로 미국과 동남아 화교화인이었다는 사실(王毓雯 2012, 25)은 화어문교육이 단순히 중국의 대외한어교육과 화문교육으로 분류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화어문교육은 중국의 대외한어교육과 화문교육을 포괄한 개념인 것이다. 치우진(丘進 2010)은 대만의 화어문교육이 해외 교민을 위한 독특한 교육형식으로서 중국의 화문교육과 같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대만의 샤청화(夏誠華)는 치우진(丘進)의 견해를 인용하며 중국에서 지칭하는 ‘해외 화문교육’이 곧 대만의 ‘교민교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의 화(어)문교육이 해외 화교화인 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중국문화 교육으로서 교육의 성격·대상·취지·내용·교수언어가 교민교육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만이 ‘교민교육’에서 ‘화(어)문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 3-10). 이렇게 볼 때, 치우진은 ‘중국의 화문교육=대만의 화어문교육’이라고 보았으며, 샤청화는 ‘중국의 화문교육=대만의 교민교육’, ‘중국의 대외한어교육=대만의 화(어)문교육’이라고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화교화인교육에서 나타난 중국과 대만의 차이는 화교화인 교육정책에서도 나타난다.

### Ⅲ. 학교 분포 및 운영

1946년 전세계에 소재한 화교화인학교는 총 3,455개이며, 그 중 아시아가 3,260개(동남아 2,605개), 미주 110개, 오세아니아 60개, 유럽 2개, 아프리카 23개이었다.<sup>19)</sup> 이후 중국의 화교교육이 중단되고 대만의 화교교육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1967년 화교학교는 총 5,300여 개가 있었으며, 주로 아시아에 분포되었다.<sup>20)</sup> 그러나 동남아국가의 공산화(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와 화교교육 금지정책(태국, 미얀마, 인니), 현지 교육체계 편입(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으로 인해 많은 화교학교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전환해야 했다.<sup>21)</sup>

2001년 중국 국교관은 세계에 약 5,000개의 화문학교와 7만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국교관은 다시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각종 형태의 화교학교 약 2만개가 있으며, 수 만 명의 재직 교사와 수십 만 명의 학생이 있다고 발표했다.<sup>22)</sup>

19) 莊國土, 1989. 『中國封建政府的華僑政策』, 7쪽. 林蒲田, 2000. “海外華文教育溯源.” 『海外華文教育』 總第14期, 25쪽 재인용.

20) 『監察院2010年度專案調查研究“我國海外僑教工作之研究與檢討”之專案調查研究』, 2010. 29쪽.

21) 자세한 것은 劉國福 2015, 102쪽 참조.

22) “海外華文教育幫扶工程任重道遠 機遇與挑戰並存.” 〈中國僑網〉(2014.12.8.).

10년 동안 화문학교의 수는 거의 4배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교관의 발표는 지역 분포와 운영형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화문학교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대만 교무위원회의 화교화인 인구 및 학교 통계를 참고해 보자.

〈표 3〉 해외 화교화인 인구수(2014년 말 기준)

(단위: 천 명)

구분	총계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인구수	42,504	31,008	8,105	1,706	1,169	466
비율	100%	73%	19%	4%	3%	1%

※ 출처: 僑務委員會, 필자 정리.

〈표 3〉을 보면, 화교화인의 73%가 아시아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장귀투(莊國土)의 연구에 따르면, 2007년 동남아 화교화인은 아시아 화교화인의 94%를 차지한다. 화교화인의 동남아시아 분포가 1950년대의 90%에서 2007년의 73.5%로 감소했지만 동남아는 여전히 화교화인의 밀집지역이다. 화교화인이 세계 각국으로 점차 분산되고 있는 추세지만, 인니·태국, 말레시아 3국 거주 화교화인만 해도 2007년 전체 화교화인 수의 52%에 이른다(莊國土 2009, 62-68; 2011, 14). 이러한 인구 분포에 따라 해외 화문학교 역시 동남아시아가 가장 많다.

〈표 4〉 해외 화문학교·중문반·대만학교 분포현황(2014년 말 기준)

(단위: 개)

구분	합계(비율)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화문학교	1736(64.15%)	1690	45	-	-	1
중문반	965(35.66%)	120	709	57	71	8
대만학교	5(0.19%)	5	-	-	-	-
총계 (비율)	2706 (100%)	1815 (67.07%)	754 (27.87%)	57 (2.11%)	71 (2.62%)	9 (0.33%)

※ 출처: 僑務委員會, 필자 정리.

〈표 4〉는 대만에 우호적인 화교(문)학교에 대한 통계자료이지만, 지역별 학교 분포와 운영형태를 알 수 있다. 아시아지역의 경우 화교(문)학교의 수가 많지만, 그 외 지역은

[www.chinaqw.com/hwjy/2014/12-08/28836.shtml](http://www.chinaqw.com/hwjy/2014/12-08/28836.shtml) ; “國僑辦副主任劉澤彭話漢語熱.”

〈中國僑網〉(2001.5.17.).

<http://www.chinaqw.com/node2/node116/node122/node171/userobject6ai3624.html>

(검색일: 2015년 6월 30일).

중문반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가운데 ①화문학교는 한국과 일본의 전일제(全日制) 화교학교 또는 현지 교육시스템에 편입되어 현지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화문학교(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를 가리킨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규모가 비교적 크다. 교과과정은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며, 학생들의 학비나 화교화인사회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일부 화교(문)학교는 중국어로 수학·물리·화학·역사·지리 등 거의 모든 과정을 중국어로 가르친다. 예컨대 말레이시아의 1,280 여개 초등학교와 60개 중등학교, 한국, 몽골, 캄보디아 등이다. ②중문반은 유럽·미국·호주·뉴질랜드 등지에서 주말 혹은 과외 시간에 실시하는 중국어·중국문화 수업이다. ③해외 대만학교는 대만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남아 지역에 대만과 동일한 학제·교재·교사를 갖추어 학생들이 귀국 후 대만 학교에 쉽게 적응하도록 설립한 학교이다.<sup>23)</sup>

동남아 화문학교의 경우, 1950-60년대까지 중국어로 가르치는 전일제 학교로 운영되었으며, 읽기와 쓰기 등 전통적인 교수방법을 사용했다. 학교는 화교사회의 소유로서 이사진이 모두 화교화인이며, 현지 교육체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학제, 교과과정, 교재 역시 중국 혹은 대만을 따랐으며, 학생 대부분이 화교화인이었다. 당시 거주국의 언어와 영어 학습 비중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동남아 각국의 정세 변화로 인해 화문학교는 1960-1970년대의 위축시기를 지나 현재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陳真 2007, 26-28). 주요 국가별 운영형태는 다음과 같다.

### 1) 말레이시아

화문학교는 초등학교 1,280 여개와 독립중학교(獨立中學) 60여 개가 있다. 교과과정 대부분 중국어로 수업한다. 초등학교는 말레이시아 교육체계에 편입되어 현지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독립중학교(獨立中學)는 현지 교육체계에 편입되지 않아 말레이시아 정부의 학력인정은 물론 학교운영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한다.

### 2) 태국

1991년 화문학교 금지령 폐지 이후, 2004년 200여개 화문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들은 태국 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학력 역시 태국정부의 인정을 받는다. 교과과정의 주요 교수언어는 태국어이며, 중국어는 중요 외국어로서 교육되고 있다.

23) 『監察院2010年度專案調查研究“我國海外僑教工作之研究與檢討”之專案調查研究』, 2010. 54-55쪽. 中華人民共和國僑務工作指南編委會編, 『中華人民共和國僑務工作指南(上)』, 249-250쪽. 『僑務委員會委託研究報告“我國僑教政策未來發展趨勢之研究”』, 2010. 158쪽 재인용.

###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76.9%가 화인이지만(廖新玲 2009, 55), 1987년 통일학제 시행 이후 전면적인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제1언어로 영어, 제2언어로 모국어(중국어, 타밀어 등)를 학습하고 있다. 화문교육은 기초화문, 보통화문, 고급화문 등 3개 교과과목으로 국한되어 있다. 1995년 15개 초등학교, 9개 중등학교에 고급화문과정이 개설되어 중국어가 영어와 같은 제1언어로 지정되기도 했다.

### 4) 인도네시아

1994년부터 중국어 사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인니 교육부는 1999년 화문교육협조 처를 설치하여 화교학교와 각종 형태의 화문 학습반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화인 중친회, 동향회 등에서 화문 학습반이 개설되고 있으며, 학습형태는 태국의 화문학교와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어 교사·교재·수업시수 등은 말레이시아·태국·싱가포르의 화문교육보다 취약하다.

### 5) 한국·일본

한국과 일본의 화교화인학교는 중국 혹은 대만의 교과서를 중국어로 교육하는 전일제 학교이다. 한국의 화교학교는 총 27개가 있으며, 모두 대만의 학제를 따르고 있다. 재학생은 주로 대만 국적의 화교이며, 일부 한국 및 중국학생도 있다. 현재 일부 한국의 화교학교는 재정난으로 인해 대만정부 외에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王恩美 2012, 157; 178-180). 일본의 화교화인학교는 총 5개이며, 그 중 3개(東京中華學校, 橫濱中華學院, 大阪中華學校)는 대만 벤체자를 사용하고, 2개(橫濱山手中華學校, 神戶中華同文學校)는 중국 간체자를 사용한다. 재학생 대부분, 화교화인이지만, 일본 및 기타 외국인도 있다(張澤崇 2003, 70-115; 137-140).

### 6) 미국

이밖에 미국은 주말이나 과외 시간에 중국어를 학습하는 중문반이 많다. 2006년 중국어가 미국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과목선 이수제(Advanced Placement, 이하 AP로 약칭)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화교화인들의 중국어 학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실시한 AP 중국어 시험 수험자 중 89.4%가 아시아계 학생이었으며, 이는 중국계 학생의 높은 응시율을 보여준다.<sup>24)</sup> 중문반은 중국어 학습 이외에 서예·역사·민족무용·장기·무술·동양화

24) 林秀惠. “從AP中文測驗看美國漢語教學方向.” 『世界日報2008年11月美國教育特刊』. <http://>

등 중국문화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張樹利 2005, 17; 席春玲 2004, 89).

상술한 바와 같이 화교화인학교는 국가·지역에 따라 교육내용, 교수언어, 교육시수, 교과과정 등을 달리하고 있다. 이처럼 화교화인학교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재정난과 교사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대만정부는 유관기관을 통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IV. 유관기관 및 정책

### 1. 중국

중국의 화교화인교육은 주로 국무원 산하 국교판과 국교판 산하의 공익형 민간단체인 중국화문교육기금회, 교육부 산하 국가한판(國家漢辦)이 주관하고 있다. 국교판은 정부급(正部級) 정부 기관으로서 화교화인관련 각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교판은 최근 학교규모, 운영상황, 현지 영향력을 갖춘 화문학교 혹은 중문반을 선별해 중점 지원하는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10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됐다.<sup>25)</sup>

〈표 5〉 1-4차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 선정 현황

대륙/국가	1차(2009)	2차(2011)	3(2013)	4(2014)	합계	
미주	미국	8	4	15	4	31
	캐나다	5	3	4	2	14
	브라질	2	-	-	-	2
	아르헨티나	-	1	1	-	3
	수리남	1	-	-	-	1
	코스타리카	-	-	1	-	1
	자메이카	-	-	1	-	1

online.sfsu.edu/hdomizio/LinLaoshi/899/AP\_LIN\_WorldJournal\_LIN\_AP\_EXAM.pdf (검색일: 2015년 6월 30일).

25) “18所華校獲授第四批海外華文教育示範學校.” 〈中國華文教育網〉(2014.12.29.).

<http://www.hwjyw.com/conference2014/content/2014/12/29/31233.shtml> (검색일: 2015년 6월 30일).

대륙/국가		1차(2009)	2차(2011)	3(2013)	4(2014)	합계
유럽	프랑스	3	-	2	-	5
	영국	3	-	5	2	10
	독일	-	5	4	-	9
	오스트리아	2	-	-	-	2
	덴마크	2	-	-	-	2
	네덜란드	2	1	-	-	2
	스페인	1	4	2	-	7
	이탈리아	2	5	1	-	8
	포르투갈	-	1	1	-	2
	스웨덴	-	2	2	-	4
	벨기에	-	1	1	-	2
	노르웨이	-	-	1	-	1
	아일랜드	-	-	1	-	1
	폴란드	-	-	2	-	2
	체코	-	-	1	-	1
스위스	-	-	1	-	1	
오세아니아	호주	4	4	7	1	16
	뉴질랜드	2	-	3	-	5
아시아	한국	2	-	1	-	3
	일본	2	-	2	-	4
	몽골	1	-	-	-	1
	필리핀	4	4	7	-	15
	캄보디아	-	3	4	2	9
	라오스	3	-	1	-	4
	태국	4	6	12	5	27
	미얀마	3	2	5	2	12
	브루나이	1	-	-	-	1
아프리카	모리셔스	1	-	-	-	1
총계(35개국)		58(22개국)	46(15개국)	88(27개국)	18(7개국)	210개

※자료출처: 國僑辦, 中國華文教育網<sup>26)</sup>의 내용을 근거로 필자 정리.

26) “國僑辦和中海協1-4批華文教育示範學校名單.” 〈中國華文教育網〉(2015.2.16.).  
<http://www.hwjyw.com/info/content/2015/02/16/31444.shtml> (검색일: 2015년 7월 15일).

지역적 분포로 보면, 아시아 76개, 유럽 59개, 미주 53개, 오세아니아 21개, 아프리카 1개이며, 이 가운데 동남아시아가 68개로 가장 많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31개, 태국 27개, 호주 16개, 필리핀 15개, 캐나다 14개, 미얀마 12개, 영국 10개 순이다. 이들은 대부분 1970년대 이후의 화교화인(신이민자)가 많거나,<sup>27)</sup> 공자학원이 많이 진출한 국가이다.<sup>28)</sup> 아프리카 국가로는 모리셔스가 유일한데, 모리셔스는 남아공을 제외하고 중국 본토의 신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sup>29)</sup> 따라서 중국의 화교화인학교 지원은 공자학원과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교관은 화문교육을 화인사회의 “유근공정(留根工程)”과 “해외 희망공정(海外希望工程)”<sup>30)</sup>으로 비유한다. 이러한 비유에 걸맞게 국교관은 2011년 11월 제2회 세계화문교육대회에서 5년 이내에 화문교육시범학교 300개를 건설하고, 매년 200개 화문학교에 도서와 음향교재를 갖춘 ‘화교육성 중문 도서관(育僑中文圖書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화문교사 5만 명의 교육연수와 해외 화인청소년 10만 명의 방학캠프를 운영하겠다고 밝혀 화교화인 교육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sup>31)</sup>

과거 중국정부의 교육자원 분배가 국가한판에 편중되어 국교관의 화문교육은 대외한어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러나 최근 국교관은 ‘조혈(造血)·수혈(輸血)계획을 실시하여 국가한판처럼 중국어 교사의 연수·선발·파송을 추진하고 있다. 국교관은 중국어 교사를 2011년 400여 명, 2012년 700여 명, 2013년 800여 명을 해외 화문학교에 파송해 화교(문)학교의 교사난을 해소하고 있다(劉華 외 2014, 83).

27) 왕귀투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중국·대만·홍콩의 신이민자 수는 약 1000만 명이며, 이 중 800여 만 명이 중국본토, 160-170만 명이 대만·홍콩 출신이다. 국가별 분포로는 미국 190만 명, 미얀마 100-110만 명, 캐나다 85만 명, 일본 60만 명, 태국 35-40만 명, 싱가포르 35만 명, 필리핀 20만 명이다(莊國土 2011, 13).

28) 2014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미주지역은 물론 세계에서 공자학원(100개)과 공자학당(356개)이 가장 많이 설립된 국가이다. 유럽에서는 영국(공자학원 25개와 공자학당 92개),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공자학원 13개와 공자학당 35개)가 가장 많다. 아시아 지역에서 태국은 공자학원(12개)과 공자학당(11개)이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설립된 국가이다(한국은 공자학원 20개와 공자학당 4개). 다만 모리셔스는 예외적으로 공자학원이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한판 홈페이지 참조. [http://www.hanban.edu.cn/confuciusinstitutes/node\\_10961.htm](http://www.hanban.edu.cn/confuciusinstitutes/node_10961.htm) (검색일: 2015년 6월 30일).

29) 2009-2010년 화교화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남아공 30만, 마다가스카르 6만, 나이지리아 5만, 모리셔스 4만 명 순이다. 그중 중국 이민자 비율은 남아공 33%, 모리셔스 25%, 마다가스카르 17%, 나이지리아 4%이다.(丘進 2012, 11).

30) 趙陽. “第一屆世界華文教育主題講話-抓住機遇, 凝聚力量, 推動海外華文教育大發展(2009).”(嚴曉鵬 2014. 203) “裘援平: 華文教育關係華人社會和諧及可持續發展.”〈國務院僑務辦公室〉(2013. 8.4.) <http://www.gqb.gov.cn/news/2013/0804/30639.shtml> (검색일: 2015년 6월 30일).

31) “僑辦: 我國擬5年內建300所海外華文教育示範學校.”〈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1. 11. 1.). [http://www.gov.cn/jrzq/2011-11/01/content\\_1983505.htm](http://www.gov.cn/jrzq/2011-11/01/content_1983505.htm) (검색일: 2015년 6월 30일).

국교판 산하 민간단체인 중국화문교육기금회(中國華文教育基金會, 이하 기금회) 역시 화교화인 교육을 추진하는 주요기구이다. 이 기구는 2004년 9월 당시 국가주석 후진타오가 지시하여 설립된 후, “중화문화를 널리 알리고 화문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중국-외국의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삼고 있다. 기금회의 설립은 중국이 문화 수출을 통해 화교업무를 추진하려는 의도를 표명한 것이며, 이는 후진타오 시기의 화교업무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다(판스핑 2014, 137). 기금회의 업무는 국교판이 관리하며, 이사진은 중앙통전부, 국무원 신문판공실(중공중앙 대외 선전 판공실), 전국인민대표대회 화교위원회, 외교부,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교육부, 재정부, 문화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교판, 전국정치협상회의 홍콩·마카오·대만 위원회, 중국 치공당(致公黨) 중앙, 중화 전국 귀국화교연합회(中華全國歸僑聯合會), 국가 언어문자 공작위원회, 지난(暨南)대학, 화교대학, 북경 화문학원(華文學院) 등 17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기금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6가지이다. ① 화문교사 육성 공정(華文師資培養工程): 해외 화문교사 교육연수 사업 ② 화문교사 난심공정(華文教師暖心工程): 30년 이상 경력의 화문교사를 위한 조국탐방 프로그램 ③ 화예 청소년 중화문화 전승공정(華裔青少年中華文化傳承工程): 화문교육 장학금 지원과 화인 청소년의 중국문화 방학 캠프 ④ 전통명절 문화활동 확대 공정(傳統節慶文化活動拓展工程): 화교사회의 중국 전통명절 문화활동 지원사업 ⑤ 화문 교육교재·자료 개발 공정(華文教輔材料開發工程): 해외 화문학교에 적합한 본토화 교재 편찬사업 ⑥ 화문교육 실태조사 연구 공정(華文教育現狀調研工程): 화교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문교육의 문제점과 발전추세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조사 등이다.

국가한판은 국제적으로 중국어·중국문화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각지에 공자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다. 또한 기금회와 함께 중국어 교재의 설계 및 보급, 중국어 강사의 교육 및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주요학교(초·중·고등교육기관)의 간체자·번체자 학습비율을 보면, 간체자 학습 학교는 전체 29.12%, 번체자 학습 학교는 13.64%, 간체자와 번체자를 모두 학습하는 학교는 57.24%로 나타났다.<sup>32)</sup> 현재 간체자가 번체자 보다 2배 이상 보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공자학원의 간체자 보급에 힘입어 세계 화교화인들 역시 번체자가 아닌 간체자 학습 교재를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어교육 지형의 변화는 공자학원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32) 『監察院2010年度專案調查研究“我國海外僑教工作之研究與檢討”之專案調查研究』, 104쪽.



## 2. 대만

대만정부의 화교화인 업무는 행정원 산하 교무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화교화인교육 주요 기구로는 교무위원회 외에 교육부 산하 국제 및 양안교류처(國際及兩岸教育司)가 있다. 교무위원회는 2000년 이후부터 정부의 정권교체로 큰 변화를 겪었다. 2000-2008년 민진당 집권 시기에는 교무위원회 철폐 및 외교부와와의 합병 논란, 예산감축으로 인해 교무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교무위원회는 한동안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특히 2001년 일부 해외 화교교육센터가 폐쇄되고, 2002년부터는 수 십년 동안 시행한 해외 화문학교 경력교사 장려제도가 폐지됐다(鄭通濤 외 2015, 8). 심지어 교무위원회가 화교학교에 정기적으로 지원했던 제도가 계획서 제출을 통한 신청제도로 바뀌어 해외 화교학교의 경영난이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교무위원회는 교재의 디지털화 선도, 오프라인의 해외 화교문화교육 서비스센터와 온라인 교사 연수반의 효율적인 조화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교무위원회의 주요업무는 교재 편찬, 교사 육성 및 선발, 해외 화교화인학교 지원이다. 예컨대 화예청년 언어연수반(海外華裔青年語文研習班)·대만 연수단(臺灣觀摩團)·해외 화교학교 교사 귀국 연수(海外僑校教師回國研習)·온라인 교사 교육반(華文網路種子師資培訓班)·인터넷 사이트〈全球華文網〉운영, 화어문 디지털 학습센터 설립 등이다. 또한 해외 주요도시 및 화교화인 분포 밀집지역에〈화교 문화교육 서비스센터(華僑文教服務中心)〉를 설립하여 현지 화교화인들의 문화교육 활동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무위원회는 2001년 시행된 대체복무제를 통해 2007년부터 화교(문)학교에 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교무위원회는 2007년에 필리핀, 2008년에 한국과 일본, 2011년에 파나마로 대체복무자를 파견하여 화교(문)학교의 심각한 교사난을 해소하고 있다.<sup>33)</sup>

2009년 국민당 집권 이후 마잉주(馬英九)는 “화교업무의 휴전(僑務休兵)”을 주장하여 중국과 경쟁이 아닌 협력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학술적으로는 화교화인교육에 대한 양안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어 교육·중국문화관련 콘텐츠 산업 진흥 및 청년 해외취업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만정부는 2013년 기존의 교육부 산하 국제문화교육사업처, 교민교육위원회, 대륙사무공작소조 등 3개 부서를 국제 및 양안교류처(國際及兩岸教育司)로 통합시켰다. 기존 교민교육위원회가 화교화인 교육 업무를 전담했지만, 화어문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조직이 개편된 것이다. 현재 국제 및 양안교류처

33) “僑務委員會派赴海外服勤之替代役教育服務役簡介.”〈中華民國僑務委員會〉  
<http://www.ocac.gov.tw/OCAC/Pages/VDetail.aspx?nodeid=808&pid=4285> (검색일:  
2015년 7월 1일).

는 국제교육·교민교육·양안교육 등 교류업무를 주관하고 있다.<sup>34)</sup> 국제 및 양안교류처는 교무위원회 등과 함께 2014년부터〈화어문교육산업 수출대국으로 향하는 8년 계획(邁向華語文教育產業輸出大國八年計畫 2013-202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과 차별화된 해외 중국어 교육시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sup>35)</sup>

## V. 맺음말

화인화교 교육의 여러 개념들은 그동안 화교화인교육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상이한 태도를 보여준다. 중국에서 화교교육은 1950년대 이후 소실되었는데, 이는 ‘화교’의 정의가 해외 거주 중국 국적자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해외 화교화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화문교육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화인 제3대 이후는 모국어 상실로 인해 화문교육이 아닌 대외한어교육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다원화되고 있는 화교화인사회에서 화문교육과 대외한어교육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 한편, 1970년대 이후 중국 이주자의 급증과 중국 화교의 증가 추세로 인해 다시 화교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국 역사 속에 묻힌 화교교육이 되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만에서는 화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화교교육이 중국의 화교교육과 화문교육을 포괄한 개념이 되었다. 화어문교육은 중국의 대외한어교육과 화문교육을 포괄한 개념으로서 대만이 중국어 국제화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하고 있는 영역이다. 대만은 1990년대 이전 해외 중국어 교육을 주도했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한어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하다(龔鵬程 2004). 해외의 중국어교육이 중국의 간체자와 한어병음으로 일원화되고, 이로 인해 대만의 입지가 축소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학계는 화교화인교육이 기존의 ‘교민교육’에서 ‘화(어)문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화교(문)학교는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규 교과과정의 화문학교는 주로 아시아에 분포되어 있으며, 주말과 과외 시간을 활용한 중문반은 주로 미주에 분포되어 있다. 화교화인학교는 국가·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재정난과 교사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대만정부는 유관기관을 통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국무원 산하 국교판과 국교판 산하의 공익형 민간단체 중국화문교육 기금회, 교육부 산하 국가한판이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화문교육을 화인사회의 “유근공정(留根工程)”과 “해외 희망공정”으로 인식하고 화교화인교육에 강한

34) 國家教育院. 2013. 『中華民國教育年報 2013』. 473쪽.

35) 教育部. 2014. 『邁向華語文教育產業輸出大國八年計畫(2013-2020)』.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단기간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 300개를 지정하여 중점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조혈’·‘수혈’계획을 통해 고질적인 교사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교관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조국탐방·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약화되었던 민족·문화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한편, 대만의 화교화인교육은 행정원 산하 교무위원회와 교육부 산하 국제 및 양안교류처(國際及兩岸教育司)가 주관하고 있다. 특히 국제 및 양안교류처는 3개 부서를 통합한 기구로서 화어문교육 국제화에 대한 대만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다. 물론 대만도 중국과 같은 교사연수와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온라인 교육으로 특화시키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를 통해 중국어교사를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만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과 청년 해외취업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과 대만의 해외 화교화인 교육은 교무공공외교와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상이한 지향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김관준, 2015. “중국의 화교화인 역사·교육·문화 네트워크 연구.” 『재외한인연구』35, 125-149.
- 손준식, 2014. “냉전시기(1950~1971) 중화민국 僑務정책의 성격과 한계 : 동남아 화교교육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43, 51-80.
- 위애, 1996. “중국의 화교정책과 해외 화인의 경제협력.” 『중소연구』20(1), 15-32.
- 이재학, 2006. “중남미 한인사회에서의 한국어 상실과 보존: 미국 한인사회와의 비교연구.” 『라틴아메리카연구』19(4), 161-187.
- 田亨權·崔榮, 2007. “中國大陸與台灣華僑政策比較分析-以民族教育與經濟合作政策為側重點.” 『중국연구』40, 387-403.
- 판스핑, 2014. 『중국의 화교정책과 업무체계』. 재외동포재단.
- 江惜美, 2009. “華語文教學的原理-如何教僑校子弟學華語文.” 『中原華語文教育學報』第3期, 43-53.
- 高崇雲·高欣·高鵬翔, 2010. “海外華文教育的回顧與展望.” 『中原華語文教育學報』第6期, 181-208.
- 郭熙, 2015. “關於新形勢下華僑母語教育問題的一些思考.” 『語言文字應用』第2期, 2-9.
- 丘進, 2010. “對外漢語教學與海外華文教育之異同.” 『教育研究』總第365期, 89-93.
- 丘進主編, 2012. 『華僑華人研究報告(2012)』.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國家教育院, 2013. 『中華民國教育年報 2013』.
- 金正昆·臧紅岩, 2012. “當代中國僑務公共外交探析.” 『廣西社會科學』2012年第5期, 1-6.
- 廖新玲, 2009. “東南亞華文教育發展現狀及趨勢研究.” 『八桂僑刊』2009年第1期, 54-59.
- 劉國福, 2013. 『僑情變化與僑務政策』. 暨南大學出版社.
- 劉華·程浩兵, 2014. “近年來海外華文教育發展的現狀, 問題及趨勢.” 『東南亞研究』2014年第2期, 82-88.
- 林偉然, 1986. “試論海外華人教育的方向.” 『南洋問題』第4期, 53-71.
- 林蒲田, 2000. “海外華文教育溯源.” 『海外華文教育』總第14期, 22-41.
- 潘朝陽, 2010. “國語文教育目的是確立中華民族大本大根.” 『海峽語論』238期, 57-59.

- 席春玲. 2004. “美國中文學校發展述評.” 『比較教育研究』第173期, 87-90.
- 嚴曉鵬. 2014. 『孔子學院與華文學校發展比較研究』. 浙江大學出版社.
- 王毓雯. 2012. “台湾における中国語教学とその研究状況について.” 『福岡大学研究部論集 A』12(3), 21-40.
- 王恩美. 2012. “華僑學校在韓國的法律地位變與生存策略.” 『思與言』第74期, 147-190.
- 莊國土. 2009. “東南亞華僑華人數量的新估算.” 『廈門大學學報』總193期, 62-69.
- 莊國土. 2011. “世界華僑華人數量和分布的歷史變化.” 『世界歷史』第5期, 4-15.
- 張樹利. 2005. “戰後美國華文教育研究.” 暨南大學碩士論文.
- 張澤崇. 2003. “日本華僑學校之研究.” 國立台灣師範大學碩士論文.
- 鄭通濤·陳榮嵐·方環海. 2015. “兩岸華文教育與文化傳播協同創新的建構機制與運作模式研究報告之一.” 『海外華文教育』第74期, 3-23.
- 中華民國監察院. 2010. 『監察院2010年度專案調查研究“我國海外僑教工作之研究與檢討”之專案調查研究』.
- 中華民國僑務委員會. 2010. 『僑務委員會委託研究報告“我國僑教政策未來發展趨勢之研究”』.
- 中華民國教育部. 2014. 『邁向華語文教育產業輸出大國八年計畫(2013-2020)第3版』.
- 陳真. 2007. “東南亞華裔的發展趨勢, 問題及對策研究.” 『雲南師範大學學報』第5卷第4期, 26-30.
- 夏誠華. 2011. “從僑民教育走向華文教育.” 『中原華語文學報』第8期, 1-8.
- 黃英湖·林蒲田. 1991. “關於華文教育工作的回顧和發展設想.” 『華僑大學學報』第1期, 23-31.
- “18所華校獲授第四批海外華文教育示範學校.” 〈中國華文教育網〉(2014.12.29.). <http://www.hwjyw.com/conference2014/content/2014/12/29/31233.shtml> (검색일: 2015년 6월 30일).
- “僑務委員會派赴海外服勤之替代役教育服務役簡介.” 〈中華民國僑務委員會〉 <http://www.ocac.gov.tw/OCAC/Pages/VDetail.aspx?nodeid=808&pid=4285> (검색일: 2015년 7월1일).
- “僑辦: 我國擬5年内建300所海外華文教育示範學校.”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1.11.1.). [http://www.gov.cn/jrzg/2011-11/01/content\\_1983505.htm](http://www.gov.cn/jrzg/2011-11/01/content_1983505.htm) (검색일: 2015년 6월 30일).

- “裘援平：華文教育關係華人社會和諧及可持續發展。”〈國務院僑務辦公室〉(2013.8.4.)  
<http://www.gqb.gov.cn/news/2013/0804/30639.shtml> (검색일: 2015년 6월 30일)
- “裘援平：2014年國僑辦將深化僑務公共外交。”〈中國新聞網〉(2014.1.9.).  
<http://www.chinanews.com/zgqj/2014/01-09/5719387.shtml> (검색일: 2015년 6월 2일).
- “裘援平：現在海外華人華僑有6000多萬 分佈在198個國家和地區。”〈新華網〉(2014.3.5.).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3/05/c\\_126225434.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3/05/c_126225434.htm) (검색일: 2015년 6월 2일).
- “國僑辦副主任劉澤彭話漢語熱。”〈中國僑網〉(2001.5.17.).  
<http://www.chinaqw.com/node2/node116/node122/node171/userobject6ai3624.html> (검색일: 2015년 6월 30일).
- “國僑辦和中海協1-4批華文教育示範學校名單。”〈中國華文教育網〉(2015.2.16.).  
<http://www.hwjyw.com/info/content/2015/02/16/31444.shtml> (검색일: 2015년 7월 15일).
- “全國僑務工作會議首提僑務公共外交。”〈中國新聞網〉(2011.10.21.).  
<http://www.chinanews.com/zgqj/2011/10-21/3406592.shtml> (검색일: 2015년 6월 2일).
- “綜述：海外華文教育與對外漢語教學期待資源整合。”〈中國新聞網〉(2014.12.9.).  
<http://www.chinanews.com/hr/2014/12-09/6858970.shtml> (검색일: 2015년 7월 1일).
- “中國政府出台孔子學院中方資金管理辦法(暫行)”〈中國僑網〉(2006.11.22.).  
<http://www.chinaqw.com/hwjy/hjxw/200611/22/52473.shtml> (검색일: 2015년 7월 1일).
- “何亞非：推進公共外交和人文交流是僑務工作新使命。”〈中國新聞網〉(2013.6.21.).  
<http://www.chinanews.com/gn/2013/06-21/4957548.shtml> (검색일: 2015년 7월 15일).
- “海外華文教育幫扶工程任重道遠 機遇與挑戰並存。”〈中國僑網〉(2014.12.8.).  
[www.chinaqw.com/hwjy/2014/12-08/28836.shtml](http://www.chinaqw.com/hwjy/2014/12-08/28836.shtml) (검색일: 2015년 7월 15일).
- 龔鵬程. 2004. “華語教學之淪陷.” <http://www.fgu.edu.tw/~kung/post/post27.htm>  
(검색일: 2015년 7월1일).
- 李嘉郁. 2004. “華文教育五題.” 『第七屆國際漢語教學討論會論文選』. 北京大學出版社.

[http://www.pep.com.cn/xgij/hyjx/dwhyjx/jxyj/jxjl/201009/t20100901\\_852830.htm](http://www.pep.com.cn/xgij/hyjx/dwhyjx/jxyj/jxjl/201009/t20100901_852830.htm) (검색일: 2015년 7월1일).

- 林秀惠. “從AP中文測驗看美國漢語教學方向.” 『世界日報2008年11月美國教育特刊』.  
[http://online.sfsu.edu/hdomizio/LinLaoshi/899/AP\\_LIN\\_WorldJournal\\_LIN\\_AP\\_EXAM.pdf](http://online.sfsu.edu/hdomizio/LinLaoshi/899/AP_LIN_WorldJournal_LIN_AP_EXAM.pdf) (검색일: 2015년 6월 30일).
- 中國與全球化智庫. “中國國際移民報告(2015).” 〈FT中文網〉(2015.4.17.).  
<http://www.ftchinese.com/story/001061602?full=y> (검색일: 2015년 7월1일).

● 투고일: 2015. 8. 6. ● 심사일: 2015. 8. 6. ● 게재확정일: 2015. 8. 13

## **Comparison between Chinese and Taiwanese Education for Overseas Chinese People**

Goh, Young He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ver since 2010s, China newly introduced the idea of the 'Public Diplomacy in Overseas Chinese Affairs' and is pursuing public diplomacy through more than 60million overseas Chinese people. Since 2012, diplomacy professionals have been placed in the Oversease Chinese Affairs of the State Council and is working towards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diplomacy and administration departments in earnest. Under such measure of the government, policy on overseas Chinese people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the national strategy. Its presence and role is expected to grow further. The traditional policy for overseas Chinese people focused only on modernization but the new policy puts a lot of weight on cultural and humanistic exchange and public diplomacy as well.

Overseas Chinese schools around the world are effective tools in building solidarity among overseas Chinese people; teaching them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and disseminating Chinese culture to the local community. Their Chinese cultural identity is strengthened by studying and experiencing Chinese culture. This becomes a great asset to China's public diplomacy. This paper examines important concepts of education provided by China and Taiwan to the overseas Chinese people. This paper also compares operational method and major policies of overseas schools for overseas Chinese people.

**<Key words>** The Public Diplomacy in Overseas Chinese affairs, Overseas Chinese Education, Overseas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Teaching Chinese as a Second Language.